

“강강술래, 해남과 진도 분리해야”



해남강강술래를 진도권 강강술래와 분리해 독자적 특성을 살리고, 진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용역 보고회가 개최된다.

해남군은 오는 19일 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강강술래 전승권 단위 분리 및 전승환경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강강술래 전승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북포대학교 산학협

력단은 보고를 통해 강강술래의 역사적 내력과 지금까지의 전승과정을 정리해 애초 별개의 내용이었다던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가 각각의 개성을 잃고 현재의 비슷한 구성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또한 1965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지역 간 전승활동의 불균형을 낳고 있는 만큼 전승권역단위 분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회복하고 전승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 19일 학술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두 지역 강강술래 발전적 방향 모색 논의

해남 우수영에서 전승되어온 강강술래의 경우 명량대첩의 승전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언론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197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반면 1980년대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진도에 들어서고 1986년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강강술래보존회로 정식 인정을 받는 등 공식적인 전승활동은 진도에서 실시되면서 해남은 자체적으로 전수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보유자와 전수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숫자도 진도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처우의 불균형과 더불어 전승과정에서 두 지역의 내용이 혼재되면서 강강술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 두 지역 강강술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강술래를 전승권 단위로 분리하는 한편 고령화·형식화 되고 있는 강강술래의 연회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 등 진흥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남군은 용역결과 제기된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차이점과 통합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전승권 단위 강강술래 분리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영강강술래 진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과 진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안에서 성행해오던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는 지난 1965년 제8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강진 방문의 해 민관추진위원회 전체회의서 주민실천과제 발굴

강진군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민·추진위원회 위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민·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상반기 성과, 5개 분야 활동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주민참여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민관추진위원회 마삼섭 공동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강진방문의 해를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이 더욱 힘을 합쳐 친절, 청결, 신뢰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방문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은 “주민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남은 6개월 동안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강진방문의 해를 군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강진이 더욱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강진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 추진을 민·관 추진위원장 주재로 강진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방향제시 등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최제영 기자

영암군 행정동우회, 호국순례·선진지 견학



영암군 행정동우회(회장 최남호)에서는 지난 12일 세종시 일원에서 호국순례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호국순례는 영암군 행정동우회원 70여명이 참가, 세종시를 방문하여 대통령기록 전시관, 밀마루 전시장 등을 견학하고 이어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현장견학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보고, 퇴임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영암군 행정동우회는 영암군청 산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현재 15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 각종 시책 홍보 등 공직경험을 활용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여론 형성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암=김원훈 기자



곡성군 “지방배go 근육 늘리go”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은 신체활동 감소와 음식의 풍족함으로 인해 복부비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BMI(체질량지수) 23kg/m² 이상 되는 주민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지방배go 근육늘리go’ 체중조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식습관 변화와 신체활동의 저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환경·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비만에 초점을 두어 주3회 3개월 과정으로 30회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체력평가와 체성분 측정후 영양분야에서는 식사일기

쓰기, 섭취한 음식 칼로리 계산, 식사일기 분석상담이 이루어지며, 운동분야는 요가강사와 신나게 운동하는 요가와 맨스, 자세교정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밸런스워킹 PT 체조, 장미공원·체육공원 숲길걷기, 한방비만침시술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락 보건소의료원장은 “참가자들이 모두 비만탈출! 이라는 목표가 있는 만큼 체중감량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 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공개모집

목포시가 2017년 시민의 상 후보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을 오는 8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

시민의 상은 제55회 시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시민, 법인·단체나 특정 분야의 국내·외

활동으로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을 선발해 수여한다.

시는 시민의 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지역 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등 6개 부문 후보자 중 1명만을 선정·시상한다.

최종 수상자는 9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은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여수 010-6661-6669
구례 010-2325-8439	영광 010-3611-3081
나주 010-3625-6665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61-552-5005
목포 010-7344-0200	장성 010-5287-7711
하당 010-5508-3830	장흥 061-862-7787
무안 010-5234-2313	진도 010-3081-5203
보성 061-853-9125	함평 011-641-3189
순천 010-2300-9083	화순 010-2077-6464
광양 010-5604-6981	고흥 010-4656-6293
해남 010-8600-2768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지역공공매장소 정문지빌딩 전화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